

반환점 돈 민선 6기 전북도정 방향

‘전북 대도약’ 준비 철저히

반환점을 돈 민선 6기, 지난 2년은 내발적 발전을 통해 앞으로 전북도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였다.

또한 전북도는 “앞으로 남은 2년은 2020년 전북 대도약을 준비할 시기”라고 말해 도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년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전북도는 지난 2년의 주요 성과에 대해 3대 핵심도정(삼각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특신 있게 추진해 만들어낸 성과를 최우선으로 내세운다.

특히 전북도가 농생명·탄소 산업 중심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은 것과 2006년부터 추진해온 탄소법 통과 등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 마련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토탈관광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전북투어패스는 정부가 벤치마킹해 이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생태관광지 선정은 전북 관광의 경쟁력을 한껏 끌어 올렸다고 평가된다.

농생명산업·토탈관광·탄소 산업 지속 추진

새만금 개발·금융타운 조성 역량 총집중

▲삼각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향후 계획은

도는 우선 농생명분야는 지난 2년간 구축된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꾸준한 정책개발과 추진만이 해결방안인 것으로 결론짓고 시행할 계획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연계와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전북지역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고(투어형), 풍부한 볼거리로 머물다 가는 관광지를 만들며(숙박형), 만족도를 높여 다시 찾는 관광지(재방문을 제고)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탄소분야는 이번 탄소법 제정을 계기로 전북이 추진해 왔던 탄소산업을 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향후 나아갈 길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 탄소분야는 이번 탄소법 제정을 계기로 전북이 추진해 왔던 탄소산업을 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향후 나아갈 길로 제시하고 있다.

▲너무 느린 새만금 개발... 앞으로의 계획은

송 지사는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새만금 공항 건설이 정부의 개발 계획에 반영되고 SOC 사업이 꾸준히 추진 중이나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이다”면서 “앞으로 도는 2020년 새만금 개발을 시기로 바라보고 달리는 만큼 새만금 내부개발도 ‘새만금 기본계획’대로 2020년까지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말했다.

▲향후 지역발전 계획은

민선 6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송 지사는 지역 발전에 대해 미래 지향적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전북도민 수가 줄어들고 특히 청년층의 유출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나 이런 현상이 비단 전북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수도권과 협조해 전북의 산업 주도권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내발적 발전을 중심으로 지역이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산업 중심의 행정을 꾸준히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즉 농생명산업, 탄소산업, 토탈관광은 2020년을 바라보고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미래의 땅 새만금과 새로운 기회인 금융타운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청년들이 머물수밖에 없는’ 전북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사고 민·관 총력 대응

중앙민관협력위, 폭염·태풍·물놀이사고 등 대비

올 여름 폭염의 조기 발생과 태풍에 따른 대규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제1회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에 민·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 여름 기상이 엘니뇨에서 라니냐(La Nina)로 변화됨에 따라 태풍·폭우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폭염의 조기 발생 등 재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와 자원봉사센터, 의사협회 등 민간기관·단체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매년 하천, 계곡 등에서 발생하

는 여름철(6~8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과 단체는 홈페이지 팝업 게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에도 민·관이 적극 참여키로 했으며 지자체 물놀이 안전관리 자원봉사 모집에도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기로 했다.

이성호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안전처 차관)은 “올 여름철 자연재난과 물놀이 안전관리에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해상에서의 대형 재난과 재해시 인명구조 능력 배양과 대응 단원 자질향상 등 팀워크를 제고하기 위해 이날 재난긴급대응단 해상구조팀 하계 해양훈련을 실시한다.

/정영수 기자

도내 수난사고 잇달아 ‘주의 요망’

올해 현재까지 89건 발생... 안전수칙 지켜야

최근 전북지역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도내 수난사고는 모두 89건으로, 이중 사망 및 부상자는 31명에 달했다.

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 미숙, 음주 후 낚시 등이었으며, 다슬기·소라 등을 채취하기 위해 안전 장비 없이 채취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지난 28일 오후 2시16분께 김제시 금구면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유모(58)씨가 물에 빠졌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지난 13일에는 김제시 금산면의 한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던 이모

(58·여)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유씨와 이씨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낚시와 다슬기 채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이나 바닷가에서는 안전구역을 벗어나 위험지역에 가서는 안되며, 물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다슬기를 채취할 경우 과음을 자제해야 한다.

또 물놀이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수영하지 않기 등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아울러 주변에서 익사사고 발생시 무리한 인명구조를 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주변에 있는 로프, 페트병, 긴막대 등을 이용해 구조할 것을 전북소방본부는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도, 복분자 판매 ‘총력’

전전북도가 복분자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직거래장터 행사를 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지사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북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에 참여해 복분자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복분자 시주기 운동과 온라인 쇼핑몰 등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복분자 관측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복분자 판매에 도가 앞장서는 이유는 복분자 소비가 줄어들고 재고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올해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있지만, 가격하락으로 복분자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름에 잠겨있는 복분자 생산 농가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복분자 재고량은 총 931톤에 달한다. 이는 전체 생산량 6940톤의 13%에 해당한다.

/정영수 기자

0~2세 아동 '맞춤형 교육' 시행

내달부터 부모와 아이의 교육 필요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지로 '맞춤형 교육' 제도가 시행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에 관해 소개했다.

앞으로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은 부모요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시간)' 또는 '맞춤반(7시간)'으로 이원화된다.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 가구는 오전 7시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이용가능하다.

맞벌이,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구직, 임신,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은 자기기술서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를 종일반에 편성할 수 있다.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이용하나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전북도 상빈자 퇴임식 29일 오후 3시 30분 도청 3층 공연장에서 퇴직자와 공로연수자 및 가족, 동료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청원이 함께하는 2016년 상빈자 퇴(이)임식'을 열어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던 선배 공무원들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된다.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중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

었으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해 향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가 과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으면 적용제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영수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와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세운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